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 '고객의 날'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지사장 황영국)는 10일 오전 지사 회의실에서 '고객의 날' 행사를 개최, 고객에게 꽃씨와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광주 동구 독거노인 맞춤형 방문 간호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폭염대책반을 편성,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비약품 제공과 건강검사 등 흑서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노관구 순천시장 스카우트연맹 감사패 받아



한국스카우트연맹 흥승수 사무총장(왼쪽)은 10일 강영중 총재를 대신해 제27회 아태잼버리대회에 이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준 노관구 순천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순천시 제공)

한전, 진도 어린이 서울초청 문화체험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사진)은 진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해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선 34명의 어린이들은 전기박물관을 견학하고 한전아트센터 청연을 관람한 뒤 남산타워와 광화문 등을 둘러봤다.

2007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온 한전은 올 하반기에도 6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쌍수 사장은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 도쿄대학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DJ 햇볕 정책펴야 한반도 평화 온다"

"존경하는 지식인들이 받은 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에 즈음해 수상하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인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72)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수상식(12일 오후 2시)에 앞서 11일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수상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DJ와 만남 이후 한국민주화 지원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이전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백낙청·이영희 선생도 존경하는 지식인"이라면서 "이들 다음으로 상을 받게 돼 명예롭게 생각하고, (나보다)이 상을 받을 사람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국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위대한 정치가로 전제한 뒤, 김 대통령은 동아시아·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화해를 위해서도 몸을 바쳐 노력한 점은 반드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 납치 사건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잘 몰랐으며, 납치 사건 이후 김대중이라는 정치가 있다는 정도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과 연대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시민 운동 등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한때 한국 입국이 차단되기도 했다.

남북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화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 6월 선언 정신을 되새기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강대국이며 민주주의 도발당했기 때문에 DJ 사상대로 북한을 향해 손을 뻗고 햇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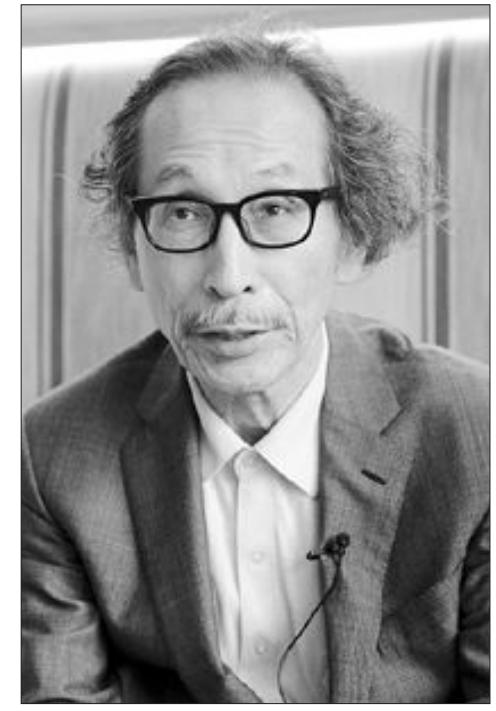
했다. 또 "과거 10년 동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에 의해 남북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협력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적 사상이 한국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미 그의 사상이 한국 정책의 틀이 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日총리 담화 진전없어 유감

그는 또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해 "하일병합이 강제적이었다는 것 외에는 진전된 내용이 없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인 자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보수적이고 반시대적인 의견이 나와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최택현 일가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의병조직 일제 항거... 광주·전남서 애국지사 15명 포장

1909년 8월 10일(음력) 합평군 학교 면 진례 들관에서 부자간인 최택현(당시 48세)·최윤룡(26선생), 최택현의 사촌인 최광현(55)·최병현(47선생 등 네 명이 나무 형틀에 둬인 채 일본군이 쏜 총에 살해됐다. 40여 명을 모아 나주·합평·영암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택현 일가는 1895년 음력 8월 20일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데 분개해 의병기를 계획했다. 일제는 미국 수탈을 위해 서둘러 일본군에 이어 나주 영산포에 일찍부터 현병대를 설치했었다.

일본 현병대와 수 차례 교전하던 최 선생 일가는 당시 4000여명의 일본군

생 일가 등 33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장을 받는 순국선열은 모두 15명이다. 최택현·윤룡·광현·병현 선생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순천출신으로 3·1 운동을 참가한 곽우영 선생과 당암출신으로 애국활동을 한 국체준 선생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무안출신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조직한 오재현 선생과 나주출신으로

의병활동을 한 임성근 선생에게 건국포장이, 3·1 운동을 하다 육고를 치른 구례 출신 강정택·김공현·박홍래·신갑도·임양순·허탁 선생과 무안 출신 정규수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담양출신 최두석 시인 오장환문학상 받는다



흐르는 생명의 억압에 대한 미학적 항의야말로 우리 시대 시장신의 요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내달 10일 보은문화 예술회관에서 오장환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장환(1918~1951년) 시인을 기리고자 실천문학사와 보은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회 오장환문학상 수상자로 담양 출신 최두석(55·한신대 교수)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 시집은 「투구꽃이다」.

심사위원들은 11일 "자연·사물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삶의 구체적 경험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상상력은 한국 현대시의 드든한 보람"이라며 "그의 시에 일관되게

죽순 껌질로 맛·향 뛰어난 수제차 만든다

담양 국근섭씨 '죽신 황금차' 개발



국씨는 "죽신 황금차"는 담양지역에서 생산된 깨끗한 죽순 껌질 부분만을 선별해 사용하고 다른 원료는 일절 혼합하지 않은

100% 순수 수제차로 차 애호가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차 맛을 본 애호가들은 빛깔이 아름다운 황금색을 띠고 맛은 승동처럼 구수하며 향과 맛이 뛰어나 시각, 후각, 미각까지 만족하게 하는 차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죽순 껌질로 맛과 향이 뛰어난 차(茶)를 개발한 수제차 명인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대나무 고장의 담양에 살고 있는 국근섭(52·당양을 삼다리)씨.

국씨는 3년간의 노력 끝에 변비와 항암, 노화 방지 등에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버려져 왔던 죽순 껌질로 '죽신 황금차'를 개발했다.

국씨가 죽순 껌질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친환경 식품의 대명사인 죽순이 다양한 요리 등에 사용됐지만 "껌질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러던 중 죽순 껌질이 피를 맑게 하고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암, 노화방지 등의 효능도 죽순과 다툴 바 없다는 것을 우연히 알고 나서 이를 활용한 차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한국프랜지공업

김영주 명예회장 별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체인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이 11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내

큰 아들로 역할을 해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5일 오전, 02-3010-2631.

/연합뉴스

모집 = 잠수교육, 스키스쿠버다이빙 062-971-9918.

▲ 활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 = 쿠션·시계·배·개·주차증·방석·액자·지갑·핸드폰풀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회원 모집 = 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 = 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초기생활수습자 062-603-8860~71.

▲ (사)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 = 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회원 수시모집 = 페리클리더, 행글라이더, 원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 백운선 디아링스쿨 회원 수시모집 = 062-227-4000.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정 회장을 도와 현대그룹을 기위해 1세대 경영인으로 벤현대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지는 등 집안에 큰 아들로 역할을 해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5일 오전, 02-3010-2631.

/연합뉴스

삼가 故인의 眞福을 빙니다

故 양동실 님(여/82세)

구/여: 손종필/김선미
임신·아버경
정신·이병자
손진선/남금식
애숙·여운용

죽음 2011년
발인 8월17일
장지 손정동선령

故 주연식 님(여/93세)

구/여:

비대극/김온자
전구/김순애
남경숙·비정원
남경숙·정종일
남경숙

죽음 2012년
발인 8월12일
장지 남대동원

故 김병호 님(남/85세)

구/여: 김강혁/최선희
임신 40년
정신·유수진
김주희/최선우

죽음 2011년
발인 8월13일
장지 영광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 062-227-4000

금호장례식장

故 김봉희 님(남/70세)

구/여:

김효봉/박수영
성종/최은선
임정원/정종원
김정원/정종원

죽음 2012년
발인 8월13일
장지 홍남국원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정성껏 섬기겠습니다!